

## 자녀들아, 아버지들아

에베소서 6:1-4,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가정은 사회의 기본 단위이다. 인류는 첫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서 나왔다. 부모 없는 사람은 없다. 사정이 있어서 부모가 자녀를 낳았으나 키우지 못하고 고아원 같은 곳에 맡긴 경우가 있을 뿐이다. 인간 윤리는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 가정은 사람의 인격 훈련장이다. 이 시간 가정 윤리에 대한 성경의 교훈을 다시 기억해보자.

### 부부 사랑

가정의 윤리적 생활은 부부의 바른 관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는 에베소서 5:22-25에 교훈되어 있다. 거기에 보면, 아내들은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되 교회가 주 예수께 하듯이 해야 하며, 남편들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되 주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해야 한다고 교훈했다.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남편도 문제이지만, 남편에게 복종치 않는 아내도 문제이다. 부부는 성경의 교훈대로 복종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

### 부모 공경

오늘 본문은 자녀들과 부모들의 의무에 대해 교훈한다. 먼저 자녀들은 자기들을 낳으신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한다.

“주 안에서”라는 말은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할 이유를 보인다.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할 이유는 주의 명령

이기 때문이라는 뜻이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의 제5계명에서 부모 공경에 대해 명하시기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고 하셨다.

“주 안에서”라는 말은 부모 공경과 순종의 한계를 보이는 뜻도 있다고 본다. 즉,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되 주의 계명 안에서 해야 한다는 뜻이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자녀들은 죄 짓는 것들이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들 외에는 모든 일에 있어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그러므로 골로새서 3:20은,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고 말한다.

잠언 1:7-9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어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이야, 네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네 머리의 아름다운 관이요 네 목의 금사슬이니라”고 말한다. 자녀들은 부모의 경건한 교훈을 잘 들어야 한다. 잠언 23:22,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잠언 13:1,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제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한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를 무시하거나 거역하지 않는 것을 내포한다. 자녀들은 그들을 낳으시고 기르신 부모를 존중하고 존경해야 한다.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무관심하거나 그들을 방치하거나 방관해서는 안 된다. 또 부모님을 구박하거나 저주하거나 구타하거나 살해하는 것은 큰 악이다. 출애굽기 21:15,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출애굽기 21:17,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녀가 부모보다 좀더 배웠다고 부모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부모들은 옛날에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혹은 여자는 많이 공부시킬 필요가 없다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었다. 그래서 많은 부모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기 자녀들만큼은 대학까지라도 공부시켜 보려고 애썼다. 부모는 돈 버는 기계가 아니다. 부모는 자기 행복을 뒷전에 두고 자녀들을 위해 희생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들이 아니다. 자녀 교육시킨다고 돈 많이 쓴 자녀가 부모에게 더 효도하지 않는다는 말은 참으로 슬픈 이야기다.

자녀들은 그들의 부모를 기쁘시게 해야 한다. 잠언 10:1,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로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잠언 23:25,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또 자녀들은 부모에게 평생 보답해야 한다. 디모데전서 5:4,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 자녀 교육

본문은 자녀 교육에 대한 부모들의 의무도 교훈한다.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께서서는 옛날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녀 교육에 대해 명하셨습니다. 신명기 6:4-9,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모든 계명들 중에 첫째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한다. 또 그뿐 아니라, 이

계명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한다.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야 한다. 자녀 교육은 부모에게 주어진 첫 번째 의무이다.

잠언 22:6,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은 성경에 교훈된 인생의 정로를 말한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부모들에게 주신 매우 중요한 의무이다.

본문 에베소서 6:4는 세 가지 내용을 말한다. 첫째로, 자녀 교육의 책임은 아버지들에게 있다.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 교육의 책임은 국가에 있지 않다. 학교에도 있지 않다. 심지어 교회에 있는 것도 아니다. 자녀 교육의 책임은 부모에게, 특히 아버지들에게 있다. 아버지들은 이 일에 대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 일에 대해 공동적 책임을 느끼며 올바른 자녀 교육에 힘써야 한다. 부모에게 자녀들은 귀한 보배이지만, 그만큼 부모의 책임이 무거움을 알아야 한다.

둘째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한다. 골로새서 3:21,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를 격노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자녀들을 훈계할 때 부모는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또 인격적이어야 한다. 자녀들이 노하게 되는 것은 정당성이 없는 훈계, 무리하고 비인격적인 훈계나 체벌을 할 때일 것이다. 그것은 교육의 역효과를 가져온다. 그러므로 자녀를 교훈할 때 성급하게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이성적으로 정당성을 가지고 해야 하며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해야 한다.

셋째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한다. ‘주의 교양과 훈계’는 성경에 있다. 그러므로 바른 자녀 교육은 성경에 근거한 교육이어야 한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규범일 뿐 아니라, 자녀 교육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책, 즉 자녀 교육의 교과서이기도 하다. 성경의

## 에베소서 6:1-4, “자녀들아, 아버지들아”

교훈의 요점은 경건과 도덕성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경건과 도덕성은 모든 성도가 힘써야 할 내용이다. 그러므로 부모는 성경의 요점인 경건과 도덕성으로 먼저 자신을 가르치며 경건과 도덕성을 실천하면서 자기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쳐야 한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들에게 먼저 경건한 생활을 가르쳐야 한다. 경건은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을 말한다. 사람이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불경건이요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경건이다. 사람의 일들 중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예배의 중요성을 가르쳐야 하고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로 온종일 거룩하게 지키는 것도 가르쳐야 하고 교회에서의 공예배뿐 아니라, 가정예배 드리는 것도 가르쳐야 하고, 또 날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야 하고 또 소독의 온전한 실일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가르쳐야 한다.

또 부모는 자녀들에게 도덕성을 가르쳐야 한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하는 것에 대해 가르쳐야 하고 윗사람에게 공손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도 가르쳐야 하고, 또 남을 죽이는 일이 악한 일이며 남을 미워하거나 욕하거나 치는 일도 악한 일임을 가르쳐야 한다. 또 사람이 결혼하여 부부가 되기 전에 이성간이나 동성간에 성관계를 가지는 것이 악한 일이며 자기의 몸을 자기 자신이 지켜야 하고 이성친구와 단둘이 있는 것을 조심하고 동성애도 죄악임을 가르치고 또 오늘날 만연한 인터넷 음란물을 접촉치 말 것을 가르쳐야 한다. 또 남의 돈이나 물건에 함부로 손 대지 말아야 함을 가르쳐야 하며 또 거짓말하는 것이 악한 일이며 또 남의 것을 탐하는 것이 악한 일임을 가르쳐야 한다. 또 모든 악이 하나님 앞에서 죄이며 사람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없고 벌을 받아야 함을 가르쳐야 한다.

이런 점들에 더하여 성경은 자녀 교육에 있어서 체벌이 필요함을

말한다. 사람은 미련해서 체벌이 효과가 있다. 어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징계하시지만, 아이들에게는 부모에게 그 일이 명령되어 있다. 잠언 13:24, “초달을 차마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일찍부터, 때가 늦지 않게, 부지런히] 징계하느니라.” 잠언 22:15,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없었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잠언 23:13-14,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지옥]에서 구원하리라.”

성경은 방탕하고 불순종하는 아들에 대한 엄한 처벌도 가르쳤다. 신명기 21:18-21,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의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바른 자녀 교육을 해서 자녀가 경건하고 도덕성 있는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은 그에게 지혜를 주고 그로 복을 얻고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할 것이지만, 그렇지 못하여 자녀를 불경건과 죄 가운데 버려두면 그는 화를 당하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피하지 못한다.

우리는 가정들이 복되기를 원한다. 부부는 자기 의무를 다하여 아내  
는 주께 복종하듯 남편에게 하고 남편은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아내  
를 사랑해야 한다.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한다.  
부모를 무시하거나 방치하거나 구박하지 말고 기쁘게 하고 보답해야 한  
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여  
그들로 하여금 경건하고 도덕성이 있는 좋은 인격자가 되게 해야 한다.